재정적자, 농어민에 떠넘기나

정부 비과세·조세감면제 대폭 축소·정비키로

면세유 혜택 컸던 전남 농어업·中企만 큰 부담

정부가 부족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 및 운송분야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1·2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업규모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남지역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과 운송분야,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각종 감세정책의 결과로 시간이 갈수록 세수 확대 폭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상쇄할 경기회복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와 같은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피하려면 세수 증대가 필수적이지만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보고 있다.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정부 추정치로만 봐도 올해 7조1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10조7천억 원, 2011년 12조5천억 원으로 점점 커진다. 정부는 애초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과표 양성화 등으로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악화로 당분간 자연 세수 증가나 과표 양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과세·감면제도의 대상이 대부분 정책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큰 농어업인이나 중소기업으로, 실제 정책이 도입될 경우 개인은 물론 농림·어업분야의 취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대에 이르는 전남 등 개발이 뒤떨어진 일부 지역이 대부분의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비과세, 조세감면의 정비대상으로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零稅率)과 농업용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등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제도여서 전남도는 물론 국회와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세율=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부담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

여수~남해~하동~광양~순천 총 연장 99㎞

광양만권 외곽순환도로 만든다

경전철 대신 왕복 4차선 도로

여수엑스포 대비 2011년 착공

여수와 순천, 광양시 등 동부권 3곳을 경전철로 잇는 동부권 순환 경전철 사업이 보류되는 대신 여수에서 남해~하동~광양~순천을 잇는 광양만권 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2년 열릴 여수엑스포와 남해안 관광벨트 연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여수~남해~하동~광양~순천을 왕복 4차선 도로로 연결하는 '광양만권 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양만권 외곽순환도로'는 도로 85.5㎞, 해상교량 13.5㎞(5개소) 등 총 길이 99㎞로, 순천에서 여수 율촌의 서편 해안을 통과해 화양관광단지와 여수박람회장을 거쳐 한려대교를 통해 경남 남해군으로 진입한 뒤 하동과 광양, 순천으로 돌아오는 순환도로이다.〈지도 참조〉

■광양만권 외곽 순환도로

이 사업은 총 사비 3조8천6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착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내년 소요 사업비 1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고 경남지역 자치단체와도 이를 협의하기로 했다.

'광양만권 SOC확보 사업'은 애초 동부권 3개 시 지역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사업 규모에 비춰 효과가 순환도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경남까지 연결하는 순환도로 사업으로 대체됐다.

전남도는 광양만권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여수세계박람회 및 남해안관광벨트 연결 기반 조성과 함께 이 지역 물류 수송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영호남 지역개발을 동시에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쇠고기 이력추적제' 오늘부터 본격 시행

국내에서 도축·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모든 소에게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산지·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

이력추적제 대상은 한우·육우(고기를 목적으로 비육한 젖소)·젖소 등 국내에서 사육·도축된 모든 소이며 수입된 쇠고기는 제외된다.

작년 12월 22일부터 1단계로 사육농가에만 적용해 오다 이번에 2단계로 유통 단계까지 시행됨 따라 앞으로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이나 거래가 금지된다.

식육 포장처리업자나 판매업자는 식육의 재포장, 판매 과정에서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하게 되며 단계마다 거래 내역 등을 이력추적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두암보건지소 문열었다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서 열린 두암보건지소 개소식에 참가한 송광운 북구청장 등 20여명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날 문을 연 두암보건지소는 지상 3층 규모(연 면적 986.1㎡)로 각종 측정장비와 통합치료실, 정신건강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북구청 제공〉

빛나만평

- 김종두

도대체 뭐하자는 시츄에이션?!

농어업·녹색산업 접목 'U-IT 기술' 선보인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을 농어업과 녹색산업분야 등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최신 IT기술이 오는 23~24일 이틀간 전남도청에서 선보인다.

전남도는 오는 23~24일 이틀간 도청사에서 지역민과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관계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u-IT(ubiquitous-Information Technology) 신기술 전시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 분야는 ▲농·어업을 응용 접목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및 센서 분야 ▲지능형 홈오토 및 홈네트워크 분야 ▲최신기술의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분야 등이며, 유·무선 통신보안장치 등 다양한 최신 IT기술을 선보인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축산물 위해요소관리 광주시 무료기술상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축산물HACCP 지정업체 및 지정을 받으려는 업체를 위해 23일 광주시청에서 '찾아가는 HACCP 무료기술상담'을 실시한다.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는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담대상은 전남·북과 광주시에 위치한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 광주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내 신종플루 환자 100명 넘어

지난달 2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50일 만에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을 다녀온 가족으로부터 4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하루 새 15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12일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27세 남자의 가족 3명이 발열, 인후통 등 증세가 있어 정밀 역학조사 결과 인플루엔자A(H1N1)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은 52세, 47세 여성과 29세 남성으로 모두 긴밀 접촉자이다.

또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한 19살 남자 유학생의 누나(22세)도 19일 감염 증세가 나타나 보건소에 신고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 보스턴에서 귀국한 74살 남성과 15일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고 돌아온 27살, 26살 여성, 위스콘신에서 온 3살, 8살 어린이 등 미국 귀국자 9명과 호주 입국자 26살 여성, 캐나다 입국자 26살 남성 등도 확진환자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 2010년 합격을 대비한 여름방학 大특강!! =

7·9級 공무원 全직렬

30 40 늦깍이 합격특별반모집 |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 향후 5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국)9급, 매년 4월 / 7급,7월 시행
지)9급, 매년 5월 / 7급,9월 시행
※서울 7.9급 행정직 매년 7월 시행
• 채용인원: 7.9급국가직3~ 4천명, 지방직4~ 5천명
= 대한민국 공시합격의 선구자 無等!! =

개 강
7월 1일 (주·야 종합반 모집)
(현재상담예약접수중)

=수강료 보조금 수혜안내=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취업지원금으로 1인당 수강료 100만원 지원 혜택을 준다.
◉국가유공자 및 취업보호대상자 수강료 50%를 국가보훈청에서 수혜혜택을 드립니다.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여름방학 이벤트 : 종합반 2개월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교재 5권 무료 증정(가격 185,000원대)

◦부대시설◦
• 전용실300여석! • 구내식당
• 인터넷정보실! • 지하주차장!
• 맞춤식 학원을 최신시설!
• 매월말 토요일 잠학 모의고사 실시!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부 고

박승철씨(목포시청) 부친 밀양박씨 박남수씨께서 2009년 6월 21일 오전 4시 20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인일시 : 2009년 6월 23일(화) 10시
발인장소 : 쌍촌동 광주한국병원장례식장
장 지 : 광주영락공원
2009년 6월 22일

아들 승철 손자 경재
승현 경선
딸 정희 경환
자부 한은희 경은
김정희

연락처 : 광주한국병원장례식장(062)380-3042
(개별부고생략) 380-3444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 00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

• 직통 : (062)227-9600
• FAX : (062)227-9500

당 병원 대표원장 박승현부친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알려드립니다.
2009년 6월 22일
광주운암한국병원

당 병원 대표원장 박승현부친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알려드립니다.
2009년 6월 22일
광주한국병원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제금융 전문인력, 지금 준비하는 당신의 미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차세대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전문가 과정

○ 과정 소개

교육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로 외환·국제금융 관련 업무(외환관리, 해외영업, 자금, 회계, 경리 등) 담당(예정)자
교육내용	환위험 관리 지식 및 기법 습득, 실무 연습 등
교육시간	24시간 (서울 : 주중 및 주말, 지방 : 주말 3회)
교육인원	각 기당 15~30명 (15명 미만 신청시 강좌 미개설)
접수처	한국금융연수원에 팩스로 신청(재직증명서 제출)
선발	선착순 (단,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배제)
수료기준	총 수업시간의 70% 이상 출석
지원사항	교육비 무료 (교재 및 식비 제공) 수료자 재직업체 요청시 환위험 관리 실무교육 무상 제공 (환위험 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 참여)

○ 일정

	서울 (1기)	대구 (2기)	부산 (3기)	마산 (4기)	광주 (5기)	대전 (6기)	경기 (7기)
접수기간	5.14~5.20	6.1~6.8	6.8~6.12	6.22~6.26	6.29~7.3	7.13~7.17	7.27~7.31
교육기간	5.23~6.2	6.13~6.27	6.20~7.4	7.4~7.18	7.11~7.25	7.25~8.8	8.8~8.22

■ 차세대 외환·국제금융·파생금융상품 전문가 과정

○ 과정 소개

교육대상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취업준비생(졸업 후 1년 이내) 단, 차세대 파생금융상품 전문가 과정은 대학원생으로 제한(재무관리, 국제경영학, 국제경제학 및 수학 전공)
교육내용	외환, 국제금융, 파생금융상품 관련 지식습득 및 실무능력 배양
접수처	한국금융연수원(www.kbi.or.kr) 홈페이지
선발	선착순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배제) 차세대 파생금융상품 전문가 과정은 접수 후 Test를 통해 선발 각 과정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자녀) 혹은 차상위계층(자녀) 우선 선발
수료기준	① 총 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 ② 전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각 과목 40점 미만시 과락)
지원사항	교육비 무료(교재, 식비 및 교통비 제공) 관련 자격평가 응시료 지원

○ 일정

과정	교육시간	인원	접수기간	교육기간
차세대 외환전문가 과정	115시간	35명	6.8~6.12	1차 : 6.24~7.24
			–	2차 : 10월(잠정)
차세대 국제금융 전문가 과정	154시간	35명	5.8~5.12	1차 : 5.23~6.27(토)/6.29~7.28(수·목)
			6.22~6.26	2차 : 7.9~8.14
금융공학을 활용한 차세대 파생금융상품 전문가 과정	148시간	25명	7.6~7.10	1차 : 7.20~8.25

■ 주 관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연수원
■ 문 의 : • 국제금융센터 전략기획실 Tel : 02-3705-6236 Fax : 02-3705-6243 Mail : eduplan@kcil.or.kr
• 한국금융연수원 종합기획부 Tel : 02-3700-1619 Fax : 02-3700-1520 Mail : eduplan@kbi.or.kr
※ 상세 정보는 국제금융센터(www.kcil.or.kr) 및 한국금융연수원(www.kbi.or.kr) 홈페이지 참조